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4(4)(1) 조침문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AI 직전 보강



선생님, 「조침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조침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
2. 제문의 형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묻는 문제
3. 작품에 제시된 주요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나요?

몇 개만 정리해 줄게.

-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 영탄법
-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 의인법
-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 대구법, 열거법
-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 의인법, 직유법

위에 제시된 사례 외에도 많이 있으니 공부하면서 잘 찾아 봐.



저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것도 정리해서 알려 줄게.

- 평범한 바늘을 뛰어난 사람과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바늘에 대한 화자의 애정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
- 대구와 열거를 활용한 3·4조의 가사체를 통해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음.
- 영탄법을 사용하여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극대화하고 있음.



제문의 형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유세차’는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 작품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로 시작하는 것에서 제문의 형식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지.





아, 진짜 제문이 아니었어요?

바늘이 부러진 거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



이 작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나요?

제문의 형식과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 줄게.

	제문	「조침문」
처 음	‘유세차(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 힘.	•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 (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 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 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찬양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슬픔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 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 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로 끝남. • 후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시험도 잘 보도록 해~



AI 직전 보강 확인



선생님. 「조침문」에서는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나요?

「조침문」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출제돼.

1. 작품에 사용된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를 묻는 문제
2. 제문의 형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묻는 문제
3. 작품에 제시된 주요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에 어떤 표현상의 특징이 나타나나요?

몇 개만 정리해 줄게.

-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 ____법
-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 ____법
- 물중(物中)의 명물(名物)이요, 철중(鐵中)의 쟁쟁(錚錚)이라. → ____법, ____법
- 추호(秋毫) 같은 부리는 말하는 듯하고 → ____법, ____법

위에 제시된 사례 외에도 많이 있으니 공부하면서 잘 찾아 봐.



저런 표현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죠?

이것도 정리해서 알려 줄게.

- 평범한 바늘을 뛰어난 사람과 사물에 비유함으로써 바늘에 대한 화자의 ____을 생동감 있게 드러냄.
- 대구와 열거를 활용한 ____조의 ____체를 통해 감정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음.
- ____법을 사용하여 애절함과 안타까움을 극대화하고 있음.



제문의 형식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어디인가요?

‘____’는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이 작품이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로 시작하는 것에서 제문의 형식을 차용했음을 알 수 있지.



아, 진짜 제문이 아니었어요?

바늘이 부러진 거지 사람이 죽은 건 아니잖아.





이 작품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나타나나요?

제문의 형식과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 줄게.

	제문	「조침문」
처 음	‘유세차(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 힘.	•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 (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____이 ____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 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 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____을 알림. • 바늘의 ____과 ____를 찬양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____과 그에 따른 ____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 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 라는 단어로 글을 맺음.	•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로 끝남. • ____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그래. 시험도 잘 보도록 해~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4(4)(1) 조침문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지문 분석

교술 갈래는 실재하는 사실을 들어 말하여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갈래(교술 갈래의 개념)로, 수필(교술 갈래의 대표적 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갈래에 비하여 실제의 외부 현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본적이다.(교술 갈래의 특징①) 문학적 형식의 제약이 적은 편이어서 다른 갈래의 속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교술 갈래의 특징②)

준비 학습 지문 분석

◎ 교술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

1. 상고 시대~고려 시대

사실을 들어 말하는(교술 갈래의 본질) 교술 갈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교술 갈래는 문학의 출발과 시작을 함께했다(교술 갈래의 시작)고 볼 수 있다. 기록으로 전하는 삼국 시대의 것들로는 한문 수용 정착과 때를 같이하는 [「광개토 대왕릉비」와 같은 비문, 각종 국서(나라의 역사나 문장 따위에 관한 책), 불교 저술 및 계송(부처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설총의 「화왕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문헌 형태로 남은 가장 오래된 여행기), 최치원의 「격황소서」 등]([] : 기록으로 전하는 삼국 시대의 교술 갈래 작품)이 있다.

▶ 한문 수용 정착과 때를 같이하는 작품들이 전함.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의 실시로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불교가 국교가 되어 걸출한 승려들이 배출됨(고려 시대에 교술 갈래가 발전된 이유)으로써 교술 갈래 발전의 바탕을 이루었다. 무신의 난 이후(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 '무신의 난 이후 신진 유학자 세력이 등장하면서 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에는 신진 유학자 세력(한문 교술 갈래의 발전을 이끈 계층)이 등장하면서 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묘지(墓誌)(죽은 사람의 이름,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 전(傳)(어떤 사람의 독특한 행적을 기록하고 여기에 교훈적인 내용이나 비판을 덧붙인 글), 설(說), 기(記) 등이 다수 창작되었고 오늘날의 비평문에 해당하는 시화(詩話)(시에 관한 비평·해설·고증과 시인의 일화를 기록한 책)들도 쓰였다. 이인로, 이규보, 최자(한문 교술 작품의 창작자들①) 등이 그 중심적인 인물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파한집」(이인로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시화집), 「백운소설」(이규보의 비평이 담긴 시화집), 「보한집」(최자가 「파한집」을 보충하는 입장에서 저술한 시화집) 등을 펴냈다. 고려 말의 이곡, 이색, 정몽주(한문 교술 작품의 창작자들②) 등은 그 후예라 할만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전(傳)에 의인화의 기법과 서사적 표현 형식을 결합(가전체의 서술 방식)한 「국선생전」, 「죽부인전」 등의 가전체(가전체와 관련하여 앞 단원의 '서사 갈래'의 내용과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나타났다. 한편 고려 시대에는 사대부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독특한 형식으로 드러내는 교술 시가(경기체가 특징)인 경기체가(「한림별곡」(한림의 학자)도 생겼으며, 고려 후기에는 가사(「서왕가」(나옹화상)도 등장하였다. 가사와 경기체가 사물이나 생활을 나열하고 서술하면서도 그 내용상 서정의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가사와 경기체가 공통점이자, 갈래 구分的 논란이 생긴 이유)들이 있어서 갈래 구分的 논란이 있다.

▶ 한문 교술 갈래, 가전체, 가사, 경기체가 등이 나타남.

2. 조선 시대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 **건국 위업을 찬양하고 통치 이념을 알리기 위하여**(악장이 등장한 이유. '**고려 시대에 악장이 나타났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악장**(「용비어천가」)을 새로이 지어 노래하였다. 악장은 **그 내용과 기능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악장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왕의 업적을 찬송하며 현재 왕의 만수와 자손의 번창을 축원, 기원하는 목적성이 강하며 향유 계층도 주로 특권 귀족층이었기 때문에 국민 문학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전대**(고려 시대. **가사의 발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발생한 교술 시가인 가사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하여 정철의 「사미인곡」, 「숙미인곡」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허난설헌의 「규원가」와 같은 여성 가사도 등장하였다. 천여 년을 넘어서 한문의 수용은 이제 **난숙한**(더할 수 없이 발달하거나 성숙한) 수준에 이르러 전통적인 한문 교술 갈래 글들도 많이 나왔고, 시문을 아우르는 한문학의 성과가 **『동문선』**(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으로 우리나라 한문학의 총 결산이라 할 만함. 조선 성종 9년(1478)에 서거정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편(正編) 130권과 중종 때 신용개, 숙종 때 송상기 등이 편찬한 속편(續編) 21권이 있음.)과 같은 책으로 **갈무리**(쌓아서 간직하여 둠.)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활발한 **언해**(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씀. 또는 그런 책) 사업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 **『내훈(內訓)』**(소혜 왕후(昭惠王后)가 『소학』, 『열녀』, 『명심보감』 등에서 역대 후비의 언행에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언해를 붙인 책으로 성종 6년(1475)에 간행됨. 궁중어와 당시의 존대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과 같은 성과를 낳았고 이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내간(內簡)**(부녀자가 쓰는 편지)들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가사는 **구체적 생활 묘사, 참신한 발상과 다채로운 표현 등이 시도**(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되었고, **작자층의 확대**(다양한 내용의 가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와 더불어 유배, 기행, 역사, 교훈, 세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나타났다. 교술 산문, 특히 일기, 서간, 기행, 제문 등은 한글로 창작된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작가**(한글로 창작된 교술 산문 작품의 작가)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산성일기」, 「한중록」, 「동명일기」, 「조침문」 등이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 악장이 나타나고 가사, 학문 교술 갈래, 내간(內簡), 교술 산문 등이 발전함.

3. 개화기~일제 강점기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쓰인 교술 작품들이 기반을 잃었고 가사도 쇠퇴**(개화기~일제 강점기 교술 갈래의 특징①)하였다. 작가의 신변과 생각과 느낌을 담담하게 풀어 놓는 **수필은 꾸준히 발전**(개화기~일제 강점기 교술 갈래의 특징②)하여 1930~1940년대에 와서 독자적 문학 갈래로 인식되었고, 1938년에는 **『박문』**(우리나라 최초의 수필 월간지)이라는 수필 전문 잡지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 김진섭, 이상, 이태준, 피천득, 이양하, 김용준 등이 수필로 이름을 높였다. 이 시기 비평은 **작품의 평가를 주된 임무로 하기보다는 문학적 이념이나 방법을 담아내는 데 많이 쓰였는데**(개화기~일제 강점기 비평의 특징), **임화, 김기림, 김환태, 최재서**(「오전의 시론」(김기림), 「문예 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김환태) 등)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 한문 교술 작품, 가사의 쇠퇴와 수필의 꾸준한 발전

4. 광복 이후

광복 이후 우리 수필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오영, 김태길**(『고독의 반추』(윤오영), 『흐르지 않는 세월』(김태길)) 등 수필 전문 작가들이 나타나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수필에 관한 학문적, 비평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독자층의 확장에 따라 전문 잡지도 늘어났으며 수필 창작에 참여하는 일반인들도 급증하였다. 비평 분야에서도 비평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논의의 주제와 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그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발전된 수필 갈래)

근래에 이르러 문학 갈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문학에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래가 수필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짧은 글에서 벗어나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규모가 큰 장편 수필이나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른 연재 수필도 창작되고 있다. 또한 수필이 다른 문학 갈래와 융합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변화하는 수필 갈래의 구체적 모습)

▶ 수필·비평 분야의 발전과 수필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

지문 분석

[유세차(維歲次)('이해의 차례는'이라는 뜻으로 제문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씀.)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실제 제문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날짜를 '모년 모월 모일'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미망인(未亡人)('나'의 현재 처지 - 남편이 죽고 홀로 남은 여자. 글쓰이가 남편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바늘'을 의인화함.)에게 고하노니]([]: 제문의 형식을 빌려 쓴 이유: 바늘을 잃은 슬픔을 보다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부녀자에게 바늘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세상 사람들은 바늘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나'와 바늘의 관계가 애도를 표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임을 알 수 있음. / 정회: 생각하는 마음. 또는 정과 회포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오호 통재(痛哉)('아, 비통하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감정을 직접적으로 제시. / 영탄법.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의인법 사용)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십칠 년(바늘을 27년 동안 썼음. → '나'의 조심성 있고 알뜰한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음.)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하리오.(설의적 표현을 통해 바늘을 잃은 슬픔을 드러냄.) 슬프다.(글쓰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냄.)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제문을 쓰는 목적(동기)에 해당함. / 바늘을 의인화하여 추모하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음. / 행장: 죽은 사람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 회포: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정 / 영결: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 제문을 쓰는 목적(동기)

[연전(年前)(몇 해 전)에 우리 시삼촌(남편의 삼촌)께옵서 동지상사(조선 시대에, 중국으로 보내던 동지사(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 사신)의 우두머리) 낙점(落點)(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 고름.)을 무르와(명을 받들어),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쌈(바늘을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쌈은 바늘 24개를 이룸.)을 주시거늘]([]: '나'가 바늘을 얻게 된 계기 - 시삼촌의 선물 / 글쓰이가 양반집 부녀자임을 알 수 있음.),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계집종과 사내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들도 쌈쌈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한 해가 조금 넘는 동안. 여기서는 여러 해 동안)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나'와 바늘의 인연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연분: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 인연 / 비상: 예사롭지 않음. / 연구: 세월이 꽤 오래됨.), 비록 무심한(생명이 없는)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함.)하지 아니하리오.(설의법)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바늘을 잃은 글쓰이의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함.)

▶ 바늘을 얻게 된 내력

[나의 신세 박명(薄命)(복이 없고 팔자가 사나움.)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흉악하고 모질.)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①바늘과 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바느질)에 마음을 붙여]([]: '나'의 가난하고 외로운 처지를 보여 주고 있음. / 운율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조시키고 글 전체를 생동감 있게 만들. 4음보의 가사체 문장. / 대구법, 열거법),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가난한 화자가 바느질을 하여 먹고 살았음을 알 수 있음. / 생애: 생계),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 '나'와 바늘의 관계

2024 고2 문학 해냄

고2 문학 해냄 | 4(4)(1) 조침문 지문 확인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생각 열기 지문 확인

교술 갈래는 _____ 하는 사실을 들어 말하여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갈래(교술 갈래의 개념)로, _____ (교술 갈래의 대표적 예)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갈래에 비하여 _____ 의 _____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본적이다.(교술 갈래의 특징①) **문학적 형식의 제약이 _____ 편이어서 _____ 의 속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교술 갈래의 특징②)

준비 학습 지문 확인

◎ 교술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

1. 상고 시대~고려 시대

사실을 들어 말하는(_____ 갈래의 본질) 교술 갈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교술 갈래는 **문학의 출발과 시작을 함께했다**(교술 갈래의 _____)고 볼 수 있다. 기록으로 전하는 삼국 시대의 것들로는 한문 수용 정착과 때를 같이 하는 [「광개토 대왕릉비」와 같은 비문, 각종 **국서**(나라의 _____ 나 _____ 따위에 관한 책), 불교 저술 및 **게송**(_____의 공덕이나 가르침을 찬탄하는 노래), 설총의 「화왕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문헌 형태로 남은 가장 오래된 _____기), 최치원의 「격황소서」 등]([] : _____으로 전하는 _____ 시대의 교술 갈래 작품)이 있다.

▶ _____ 수용 정착과 때를 같이하는 작품들이 전함.

고려 시대에는 _____의 실시로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_____가 국교가 되어 **걸출한 승려들이 배출됨**(고려 시대에 _____갈래가 발전된 이유)으로써 교술 갈래 발전의 바탕을 이루었다. **무신의 난 이후**(_____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난 시기. **‘무신의 난 이후 신진 유학자 세력이 등장하면서 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적절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에는 **신진 세력**(한문 교술 갈래의 발전을 이끈 계층)이 등장하면서 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묘지(墓誌)**(죽은 사람의 이름, 신분, 행적 따위를 기록한 글), **전(傳)**(어떤 사람의 독특한 _____을 기록하고 여기에 _____적인 내용이나 _____을 덧붙인 글), 설(說), 기(記) 등이 다수 창작되었고 오늘날의 비평문에 해당하는 **시화(詩話)**(_____에 관한 비평·해설·고증과 시인의 일화를 기록한 책)들도 쓰였다. **이인로, 이규보, 최자**(_____작품의 창작자들①) 등이 그 중심적인 인물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파한집』**(이인로가 지은 우리나라 최초의 _____), **『백운소설』**(이규보의 _____이 담긴 시화집), **『보한집』**(최자가 『파한집』을 _____하는 입장에서 저술한 시화집) 등을 펴냈다. 고려 말의 **이곡, 이색, 정몽주**(_____작품의 창작자들②) 등은 그 후예라 할만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전(傳)에 _____의 기법과 _____적 표현 형식을 결합**(가전체의 서술 방식)한 「국선생전」, 「죽부인전」 등의 **가전체(가전체와 관련하여 앞 단원의 ‘서사 갈래’의 내용과 연결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가 나타났다. 한편 고려 시대에는 **사대부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독특한 형식으로 드러내는 교술 시가**(경기체가의 특징)인 _____(「한림별곡」(한림의 학자)도 생겼으며, 고려 후기에는 **가사**(「서왕가」(나옹화상))도 등장하였다. 가사와 경기체가는 _____이나 _____을 나열하고 서술하면 서도 그 내용상 _____의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가사와 경기체가의 공통점이자, 갈래 구분의 논란이 생긴 이유)들이 있어서 갈래 구분의 논란이 있다.

▶ _____갈래, _____, _____, _____등이 나타남.

2. 조선 시대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 **건국 위업을 찬양하고 통치 이념을 알리기 위하여**(악장이 등장한 이유. '**고려 시대에 악장이 나타났다**'라는 잘못된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_____(『용비어천가』)을 새로이 지어 노래하였다. 악장은 **그 내용과 기능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악장은 _____ 건국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선왕의 업적을 _____하며 현재 왕의 만수와 자손의 번창을 축원, 기원하는 _____성이 강하며 향유 계층도 주로 특권 _____층이었기 때문에 국민 문학으로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었음.) **전대**(_____ 시대. **가사의 발생 시기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발생한 교술 시가인 가사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하여 정철의 「사미인곡」, 「숙미인곡」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허난설헌의 「규원가」와 같은 여성 가사도 등장하였다. 천여 년을 넘어서 한문의 수용은 이제 **난숙한**(더할 수 없이 _____하거나 _____한) 수준에 이르러 전통적인 한문 교술 갈래 글들도 많이 나왔고, 시문을 아우르는 한문학의 성과가 「_____」(신라 때부터 조선 숙종 때까지의 시문(詩文)을 모아 엮은 책으로 우리나라 한문학의 총 결산이라 할 만함. 조선 성종 9년(1478)에 서거정이 왕명에 따라 편찬한 정편(正編) 130권과 중종 때 신용개, 숙종 때 송상기 등이 편찬한 속편(續編) 21권이 있음.)과 같은 책으로 **갈무리**(쌓아서 _____하여 됨.)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활발한 언해**(한문을 한글로 풀어서 씀. 또는 그런 책) 사업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 「_____ (內訓)」(소혜 왕후(昭惠王后)가 『소학』, 『열녀』, 『명심보감』 등에서 역대 후비의 언행에 본보기가 될 만한 내용을 추려서 언해를 붙인 책으로 성종 6년(1475)에 간행됨. 궁중어와 당시의 존대어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임)과 같은 성과를 낳았고 이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내간(內簡)**(_____가 쓰는 _____)들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와서 가사는 **구체적 생활 묘사, 참신한 발상과 다채로운 표현 등이 시도**(조선 후기 가사의 특징)되었고, _____의 **확대**(다양한 내용의 가사가 등장하게 된 배경)와 더불어 유배, 기행, 역사, 교훈, 세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나타났다. 교술 산문, 특히 일기, 서간, 기행, 제문 등은 한글로 창작된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작가**(_____로 창작된 교술 산문 작품의 작가)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산성일기」, 「한중록」, 「동명일기」, 「조침문」 등이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 _____이 나타나고 _____, _____갈래, _____(內簡), _____등이 발전함.

3. 개화기~일제 강점기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_____으로 쓰인 **교술 작품들이 기반을 잃었고 _____도 쇠퇴**(개화기~일제 강점기 교술 갈래의 특징①)하였다. 작가의 신변과 생각과 느낌을 담담하게 풀어 놓는 _____은 **꾸준히 발전**(개화기~일제 강점기 교술 갈래의 특징②)하여 1930~1940년대에 와서 독자적 문학 갈래로 인식되었고, 1938년에는 「_____」(우리나라 최초의 수필 월간지)이라는 수필 전문 잡지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 김진섭, 이상, 이태준, 피천득, 이양하, 김용준 등이 수필로 이름을 높였다. 이 시기 비평은 **작품의 _____를 주된 임무로 하기보다는 문학적 _____이나 _____을 담아내는 데 많이 쓰였는데**(개화기~일제 강점기 비평의 특징), **임화, 김기림, 김환태, 최재서**(『오전의 시론』(김기림), 『문예 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김환태) 등)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 _____교술 작품, _____의 쇠퇴와 _____의 꾸준한 발전

4. 광복 이후

광복 이후 우리 수필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오영, 김태길**(『고독의 반추』(윤오영), 『흐르지 않는 세월』(김태길)) 등 _____전문 작가들이 나타나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수필에 관한 _____적, _____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독자층의 확장에 따라 전문 잡지도 늘어났으며 수필 창작에 참여하는 _____들도 급증하였다. 비평 분야에서도 비평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논의의 주제와 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그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발전된 수필 갈래)

근래에 이르러 문학 갈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문학에서 기존의 _____을 뛰어넘는 _____시도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래가 수필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짧은 글에서 벗어나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규모가 큰 _____수필이나 하나의 주제를 다

양한 시각에서 다른 수필도 창작되고 있다. 또한 수필이 다른 문학 갈래와 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1[[] : 변화하는 수필 갈래의 구체적 모습)

▶ 분야의 발전과 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짐.

지문 확인

[유세차(維歲次)('의 는'이라는 뜻으로 의 첫머리에 관용적으로 씀.)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실제 제문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음. 날짜를 '모년 모월 모일'로 기재한 이유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에, 미망인(未亡人)('나'의 현재 처지 - 이 죽고 홀로 남은 글쓰이가 남편이 없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바늘'을 의인화함.)에게 고하노니 1[[] : 의 형식을 빌려 쓴 이유: 을 잃은 을 보다 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에게 바늘은 소중한 존재라고 여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세상 사람들은 을 귀하게 여기지 않음.)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르이라.('나'와 바늘의 관계가 를 포할 정도로 한 사이임을 알 수 있음. / 정회: 하는 마음. 또는 과 를 아울러 이르는 말) 오호 통재(痛哉)('아, 하다'라는 뜻으로, 슬플 때나 탄식할 때 하는 말. 감정을 적으로 제시. / 법. 표현법과 관련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습니다.)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법 사용)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에 지) 이십칠 년(을 27년 동안 썼음. → '나'의 있고 성품을 짐작할 수 있음.)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렇지 아니하리오.(적 표현을 통해 바늘을 잃은 을 드러냄.) 슬프다.(글쓰이의 감정을 적으로 드러냄.)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충충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제문을 쓰는 ()에 해당함. / 바늘을 화하여 하는 형태로 글을 쓰고 있음. / 행장: 이 평생 살아온 일을 적은 글 / 회포: 마음속에 품은 이나 / 영결: 과 이 서로 영원히 헤어짐.)

▶ 제문을 쓰는 ()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의 삼촌)께옵서 동지상사(조선 시대에, 으로 보내던 동지사(해마다 동짓달에 중국으로 보내던)의) 낙점(落點)(가 있을 때 그중에 마땅한 대상을)을 무르와(을 어),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썸(을 묶어 세는 단위로 한 썸은 바늘 개를 이름.)을 주시거늘 1[[] : '나'가 바늘을 얻게 된 계기 - 의 선물 / 글쓰이가 임을 알 수 있음.),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과 을 아울러 이르는 말)들도 썸썸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가 조금 넘는 동안. 여기서는 동안)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나'와 바늘의 이 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연분: 서로 를 맺게 되는 / 비상: 지 아니함. / 연구: 이 꽤 됨.), 비록 무심한(이 없는)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무엇에 을 차지지 못함.)하지 아니하리오.(법)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바늘을 잃은 글쓰이의 감정을 적으로 토로함.)

▶ 바늘을 얻게 된

[나의 신세 박명(薄命)(이 없고 가 사나움.)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고)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① 과 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②)에 마음을 붙여 1[[] : '나'의 하고 처지를 보여 주고 있음. / 을 활용하여 화자의 감정을 고 글 전체를 있게 만들. 음보의 가사체 문장. / 법, 법),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한 화자가 을 하여 먹고 살았음을 알 수 있음. / 생애:),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

▶ '나'와 바늘의

2024
고2 문학
해넌

2024 고2 문학 해넌 | 4(4)(1) 조침문 내신 암기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암기용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한글 수필
성격	애도적, 고백적, 추모적
제재	바늘
주제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애통 함.
특징	- 바늘을 의인화하여 제문의 형식으로 표현함. 비유, 열거, 대구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줌.

2. 글쓴이의 처지와 신분

시삼촌이 동지상사로 임명됨. - 바늘을 나누어 줄 미복이 있었음. 제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씀. 고사를 활용하고 있음.



양반집 아녀자로 추측 가능

3. '바늘'의 역할과 의미

- 생계**에 도움을 줌.
- 외로운 '나'에게 **벗**과 같은 존재임.
- 품질**과 **재주**가 매우 뛰어남.
- 바늘이 부러져 몹시 괴로움.

4. 제문의 형식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

	제문	「조침문」
처음	' 유세차 (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내력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찬양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정과 그에 따른 슬픔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오호 애재라, 바늘이여.'로 끝남. 후세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TEST 1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한□ 수필
성격	애도적, 고백적, 추□적
제재	바늘
주제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애□함.
특징	• 바늘을 의□화하여 제□의 형식으로 표현함. • 비□, 열□, 대□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섬□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적으로 보여 줌.

2. 글쓴이의 처지와 신분

• 시□촌이 동지상사로 임명됨. • 바늘을 나누어 줄 비□이 있었음. • 제□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씀. • 고□를 활용하고 있음.



양□집 아녀자로 추측 가능

3. '바늘'의 역할과 의미

- 생□에 도움을 줌.
- 외로운 '나'에게 □과 같은 존재임.
- 품□과 재□가 매우 뛰어남.
- 바늘이 부러져 몹시 괴로움.

4. 제문의 형식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

	제 문	「조침문」
처 음	‘유□차(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 ‘유□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부□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 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내□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찬□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과 그에 따른 슬□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 ‘오호 애□라, 바늘이여.’로 끝남. •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TEST 2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ㅎ] 수필
성격	애도적, 고백적, [ㅈ]적
제재	바늘
주제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ㅇ]함.
특징	- 바늘을 [ㅇ] 화하여 [ㅈ]의 형식으로 표현함. [ㅂ], [ㅇ], [ㄷ]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ㅅ]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ㄱ]적으로 보여 줌.

2. 글쓴이의 처지와 신분

[ㅅ]이 동지상사로 임명됨. - 바늘을 나누어 줄 [ㅂ]이 있었음. [ㅈ]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씀. [ㄱ]을 활용하고 있음.
--



[ㅇ] 집 아녀자로 추측 가능

3. '바늘'의 역할과 의미

[ㅅ]에 도움을 줌. - 외로운 '나'에게 [ㅂ]과 같은 존재임. [표]과 [ㅈ]가 매우 뛰어남. - 바늘이 부러져 몹시 괴로움.

4. 제문의 형식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

	제문	「조침문」
처음	'[ㅇ] [ㅅ] [ㅈ]' (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ㅇ] [ㅅ] [ㅈ]' (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ㅂ] [ㄱ] [ㅈ]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ㄴ]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ㅈ] [ㅇ]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ㄱ] [ㅈ]과 그에 따른 [ㅅ] [표]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오호 [ㅇ] [ㅈ]라, 바늘이여.'로 끝남. [ㅎ] [ㅅ]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TEST 3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 수필
성격	애도적, 고백적, □□적
제재	바늘
주제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함.
특징	- 바늘을 □□화하여 □□의 형식으로 표현함. □□, □□, □□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적으로 보여 줌.

2. 글쓴이의 처지와 신분

□□□이 동지상사로 임명됨. - 바늘을 나누어 줄 □□이 있었음. □□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씀. □□를 활용하고 있음.



□□집 아녀자로 추측 가능

3. '바늘'의 역할과 의미

□□에 도움을 줌. - 외로운 '나'에게 □□과 같은 존재임. □□과 □□가 매우 뛰어남. - 바늘이 부러져 몹시 괴로움.

4. 제문의 형식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

	제 문	「조침문」
처 음	‘□□□(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 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과 그에 따른 □□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오호 □□라, 바늘이여.’로 끝남. □□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TEST 4단계

1. 제재 개관

갈래	고전 수필, ____ 수필
성격	애도적, 고백적, ____적
제재	바늘
주제	부러뜨린 바늘에 대한 ____함.
특징	• 바늘을 ____화하여 ____의 형식으로 표현함. • ____, ____, ____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통해 글쓴이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냄. • ____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____적으로 보여 줌.

2. 글쓴이의 처지와 신분

• ____이 동지상사로 임명됨. • 바늘을 나누어 줄 ____이 있었음. • ____의 형식을 활용하여 글을 씀. • ____를 활용하고 있음.
--



____집 아녀자로 추측 가능

3. '바늘'의 역할과 의미

- ____에 도움을 줌.
- 외로운 '나'에게 ____과 같은 존재임.
- ____과 ____가 매우 뛰어남.
- 바늘이 부러져 몹시 괴로움.

4. 제문의 형식으로 살펴본 주요 내용

	제문	「조침문」
처음	‘____(維歲次)’로 시작하며 글을 쓰게 된 동기나 배경을 밝힘.	• ‘____(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로 시작함. • 바늘이 ____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힘.
중간	죽은 사람의 행적을 기술하거나 찬양하며 살아 있는 사람의 감정을 드러냄.	• 바늘을 얻게 된 ____을 알림. • 바늘의 품질과 재주를 ____함. • 바늘이 부러지게 된 ____과 그에 따른 ____을 드러냄.
끝	슬픔의 정을 담아 죽은 이의 명복을 빌어 주고, ‘상향(尙饗)’이라는 단어로 끝을 맺음.	• ‘오호 ____라, 바늘이여.’로 끝남. • ____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함.

O / X 문제

【1~20】 「조침문」에 대해 제시된 설명이 적절하면 O, 아니면 X를 선택하시오.

1.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을 통해 제문의 형식을 따랐지만, 실제 제문이 아니기 때문에 날짜를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X)

2.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를 통해 글쓴이의 신분이 평민이라서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X)

3. 선물 받은 바늘을 친척과 비복들에게 나눠준 것으로 보아 처음에는 바늘에 별로 관심이 없고 바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O/X)

4. 가산이 빈궁하여 침선에 마음을 붙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집안이 가난하여 바느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며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X)

5. ‘정신이 아득하고 혼백(魂魄)이 산란하여, 마음을 뺏아 내는 듯, 두골(頭骨)을 깨쳐 내는 듯’을 통해 바늘이 부러진 것이 두 개의 뼈가 부러진 것만큼 슬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X)

6. ‘미망인(未亡人)’,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를 통해 자녀가 병으로 일찍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O/X)

7. 바늘 한 개를 오랜 기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조심성 있고 알뜰한 성품임을 알 수 있다. (O/X)

8.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를 통해 바늘이 글쓴이를 부정적인 방향으로 유혹하였으나 결국 바늘이 소중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O/X)

9. 서로 다른 대상을 비교함으로써 우열을 정하고 평가하고 있다. (O/X)

10. 대상의 상황과 반대되는 고사를 인용하여 주제를 더욱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O/X)

11. 대상과 대화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인생사의 굴곡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O/X)

12. 4음보의 가사체 율격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O/X)

13. <규중칠우쟁론기>와 같이 규방에서 여성들에게 친숙한 사물을 인격적 존재로 간주하여 표현하고 있다. (O/X)

14. 조선 시대 여성이 창작한 국문 수필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으로 작자 미상이다. (O/X)

15. 섬세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O/X)

16. 제재를 중심으로 글쓴이의 심리가 변화하는 과정을 파악할 수 있다. (O/X)

17. 대상을 의인화하여 작품의 관념성과 규범성을 강조하고 있다. (O/X)

18. 바늘이 부러져 글을 쓰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O/X)

19. 영탄법을 사용하여 글쓴이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O/X)

20. 사자성어를 활용하여 재회에 대한 기약을 소망하고 있다. (O/X)

목단배포음

- | | | | | | | | |
|-------|-------|-------|-------|-------|-------|-------|------|
| 1. O | 2. X | 3. X | 4. O | 5. X | 6. X | 7. O | 8. X |
| 9. O | 10. X | 11. X | 12. O | 13. O | 14. X | 15. O | |
| 16. O | 17. X | 18. O | 19. O | 20. O | | | |

2024
고2 문학
해냄

2024 고2 문학 해냄 | 4(4)(1) 조침문 복습 필기용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복습 필기용은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학습용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 여러분이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나만의 필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이해한 것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해를 점검하도록 하세요!

생각 열기 지문

교술 갈래는 실재하는 사실을 들어 말하여 그에 대한 생각과 느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는 갈래로, 수필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갈래에 비하여 실제의 외부 현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근본적이다. 문학적 형식의 제약이 적은 편이어서 다른 갈래의 속성을 포용하는 정도가 크다.

핵심 정리

준비 학습 지문

◎ 교술 갈래의 전개와 구현 양상

1. 상고 시대~고려 시대

사실을 들어 말하는 교술 갈래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교술 갈래는 문학의 출발과 시작을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기록으로 전하는 삼국 시대의 것들로는 한문 수용 정착과 때를 같이하는 「광개토 대왕릉비」와 같은 비문, 각종 국서, 불교 저술 및 계송, 설총의 「화왕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 최치원의 「격황소서」 등이 있다.

고려 시대에는 과거제의 실시로 유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불교가 국교가 되어 걸출한 승려들이 배출됨으로써 교술 갈래 발전의 바탕을 이루었다. 무신의 난 이후에는 신진 유학자 세력이 등장하면서 한문 교술 갈래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묘지(墓誌), 전(傳), 설(說), 기(記) 등이 다수 창작되었고 오늘날의 비평문에 해당하는 시화(詩話)들도 쓰였다. 이인로, 이규보, 최자 등이 그 중심적인 인물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파한집』, 『백운소설』, 『보한집』 등을 펴냈다. 고려 말의 이곡, 이색, 정몽주 등은 그 후예라 할만하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종래의 전(傳)에 의인화의 기법과 서사적 표현 형식을 결합한 「국선생전」, 「죽부인전」 등의 가전체가 나타났다. 한편 고려 시대에는 사대부의 생활 방식과 태도를 독특한 형식으로 드러내는 교술 시가인 경기체가도 생겼으며, 고려 후기에는 가사도 등장하였다. 가사와 경기체가는 사물이나 생활을 나열하고 서술하면서도 그 내용상 서정의 요소를 담고 있는 작품들이 있어서 갈래 구분의 논란이 있다.

2. 조선 시대

조선 건국의 주역들은 건국 위업을 찬양하고 통치 이념을 알리기 위하여 악장을 새로이 지어 노래하였다. 악장은 그 내용과 기능이 매우 한정적이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전대에 발생한 교술 시가인 가사는 정극인의 「상춘곡」에서 시작하여 정철의 「사미인곡」, 「숙미인곡」에 이르기까지 빼어난 작품들이 창작되었으며, 허난설헌의 「규원가」와 같은 여성 가사도 등장하였다. 천여 년을 넘어서 한문의 수용은 이제 난숙한 수준에 이르러 전통적인 한문 교술 갈래 글들도 많이 나왔고, 시문을 아우르는 한문학의 성과가 『동문선』과 같은 책으로 갈무리되기도 하였다. 훈민정음의 창제는 활발한 언해 사업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 『내훈(內訓)』과 같은 성과를 낳았고 이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한 내간(內簡)들이 나타났다. 조선 후기에 와

서 가사는 구체적 생활 묘사, 참신한 발상과 다채로운 표현 등이 시도되었고, 작자층의 확대와 더불어 유배, 기행, 역사, 교훈, 세태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는 작품이 나타났다. 교술 산문, 특히 일기, 서간, 기행, 제문 등은 한글로 창작된 것이 많이 나타났는데, 그 작가 가운데 여성이 많은 것 또한 흥미로운 사실이다. 「산성일기」, 「한중록」, 「동명일기」, 「조침문」 등이 잘 알려진 작품들이다.

3. 개화기~일제 강점기

근대 문학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문으로 쓰인 교술 작품들이 기반을 잃었고 가사도 쇠퇴하였다. 작가의 신변과 생각과 느낌을 담담하게 풀어 놓는 수필은 꾸준히 발전하여 1930~1940년대에 와서 독자적 문학 갈래로 인식되었고, 1938년에는 『박문』이라는 수필 전문 잡지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 김진섭, 이상, 이태준, 피천득, 이양하, 김용준 등이 수필로 이름을 높였다. 이 시기 비평은 작품의 평가를 주된 임무로 하기보다는 문학적 이념이나 방법을 담아내는 데 많이 쓰였는데, 임화, 김기림, 김환태, 최재서 등이 주로 활동하였다.

4. 광복 이후

광복 이후 우리 수필은 한층 더 발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오영, 김태길 등 수필 전문 작가들이 나타나 활동하기 시작하였고 수필에 관한 학문적, 비평적 논의도 활발해졌다. 독자층의 확장에 따라 전문 잡지도 늘어났으며 수필 창작에 참여하는 일반인들도 급증하였다. 비평 분야에서도 비평가의 수가 급증하면서 논의의 주제와 심도가 넓어지고 깊어졌으며 그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다.

근래에 이르러 문학 갈래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갈래가 수필이다. 최근에는 기존의 짧은 글에서 벗어나 구성이 다소 복잡하고 규모가 큰 장편 수필이나 하나의 주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다룬 연재 수필도 창작되고 있다. 또한 수필이 다른 문학 갈래와 융합하는 등의 개방적인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핵심 정리

목단배포심

지문

유세차(維歲次) 모년(某年) 모월(某月) 모일(某日)에, 미망인(未亡人) 모씨(某氏)는 두어 자 글로써 침자(針子)에게 고하노니, 인간 부녀(人間婦女)의 손 가운데 중요한 것이 바늘이로대, 세상 사람이 귀히 아니 여기는 것은 도처에 흔한 바이로다. 이 바늘은 한낱 작은 물건이나, 이렇듯이 슬퍼함은 나의 정회(情懷)가 남과 다름이라. 오호 통재(痛哉)라, 아깝고 불쌍하다. 너를 얻어 손 가운데 지닌 지 우금(于今) 이십칠 년이라. 어이 인정(人情)이 그럴지 아니하리요. 슬프다. 눈물을 잠깐 거두고 심신을 겨우 진정하여, 너의 행장(行狀)과 나의 회포(懷抱)를 총총히 적어 영결(永訣)하노라.

연전(年前)에 우리 시삼촌계옵서 동지상사 낙점(落點)을 무르와, 북경을 다녀오신 후에 바늘 여러 쌍을 주시거늘, 친정과 원근 일가(一家)에게 보내고, 비복(婢僕)들도 쌍쌍이 나누어 주고, 그중에 너를 택하여 손에 익히고 익히어 지금까지 해포 되었더니, 슬프다, 연분(緣分)이 비상(非常)하여 너희를 무수히 잃고 부러뜨렸으되, 오직 너 하나를 연구(年久)히 보전하니, 비록 무심한 물건이나 어찌 사랑스럽고 미혹(迷惑)하지 아니하리오. 아깝고 불쌍하며, 또한 섭섭하도다.

나의 신세 박명(薄命)하여 슬하에 한 자녀(子女) 없고, 인명(人命)이 흉완(凶頑)하여 일찍 죽지 못하고, 가산(家産)이 빈궁하여 침선(針線)에 마음을 붙여, 널로 하여 생애를 도움이 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너를 영결(永訣)하니, 오호 통재라, 이는 귀신이 시기하고 하늘이 미워하심이로다.